

安心安身の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1) 原始組織
II. 大巡眞理會의 三大基礎	2) 宗團組織
1. 一般宗教의 三大基礎	3) 行政組織
2. 大巡眞理會의 三大基礎	III. 大巡眞理會의 信條概論
(1) 理論的 基礎-大巡思想論	1. 大巡眞理會要覽의 說明
1) 宇宙觀-天下大巡論	2. 鄭大珍 理事長의 見解
2) 人生觀-人尊時代論	IV. 心身이란 무엇인가
3) 世界觀-造化仙境論	1. 生氣論과 機械論
(2) 實踐的 基礎-大巡修道論	2. 唯氣論的 心身觀
1) 大巡修道의 信條	3. 甌山의 心身觀
2) 大巡修道의 方法	V. 道通과 醫統
(3) 組織的 基礎-大巡宗團論	VI. 安心安身の 現代的 意義

I. 머리말

그동안 대순진리회의 4대종지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에 관하여 고찰하여 왔다. 4대종지는 말하자면 대순사상의 이론적기초(理論的基礎)를 이루는 원리편(原理篇)이다. 대순진리회는 하나의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교리(敎理)의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고 다시 그 교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초(實踐的 基礎)가 필요하고 또 그 이론과 실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 기초(組織的 基礎)가 필요하다. 지금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까지 고찰하여온 대순진리회의 4대종지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의 이론을 고찰한 것인데 이것을 대순사상론(大巡思想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만 가지고서는 종교가 성립할 수는 없고 그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수도(修道)가 필요한데 이것을 대순수도론(大巡修道論)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과 대순수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기초는 대순종단론(大巡宗團論)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순사상론을 주로 고찰하였는데 이제부터 대순수도론과 대순종단론을 고찰할 단계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시점에서 대순진리회의 3대기초인 대순사상과 대순수도와 대순종단에 대해서 개괄적인 고찰을 해보고 나서 대순수도론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Ⅱ. 대순진리회의 3대기초

모든 종교는 이론적 기초, 실천적 기초, 조직적 기초가 있는데 기독교적 신학(基督敎的 神學)에서는 이를 조직신학(組織神學) 실천신학(實踐神學) 역사신학(歷史神學)이라고 한다.

조직신학에서는 기독교의 교리(敎理)나 교의(敎義)를 다루는 이론적 부문이요 실천신학은 기독교를 제대로 믿기 위한 종교행위가 다루어지며 역사신학에서는 교회와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종교집단에 관한 것이 주과제가 된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하여 그 종교의 교리를 다루는 종교사상(宗敎思想)과 그 종교를 믿는 실천적 방법을 다루는 종교행위(宗敎行爲)와 그 종교집단(宗敎集團)의 조직을 다루는 종교조직(宗敎組織)이 있다.

1. 일반종교의 3대 기초

(1) 종교사상

종교의 이론(理論)적 기초가 종교사상인데 종교사상은 그 종교가 어떠한 우주관(宇宙觀) 어떠한 인생관(人生觀) 어떠한 사회관(社會觀)을 가지고 있는

나 하는 것이다.

우주관이라함은 우주가 언제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장차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모든 종교는 우주를 하느님(天主) 신(神) 신명(神明) 신령(神靈) 천제(天帝) 상제(上帝)가 창조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주관에서는 신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신이 유일신(唯一神)이나 또는 다신(多神)이나 또는 범신(汎神)이라 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 된다.

인생관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인간의 본성(本性)은 어떠한 것이며 인간의 생활의 가치는 무엇이며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善)하나 또는 악(惡)하나 하는 문제가 있고 인간에게는 영혼(靈魂)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인간의 사후(死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인생관의 중요 과제가 된다.

사회관은 세계관(世界觀)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이 혼자 살지 못하고 사회라는 집단(集團)을 이루고 사는 까닭에 그 사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사회는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며 인간이 현실 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후(死後)에도 어떤 사회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2) 종교행위

종교사상의 이론을 신앙심이나 수도(修道)로 직접 체험(體驗)하는 실천활동이 종교행위이다. 종교행위에는 개인적인 기도(祈禱)나 명상(冥想)이나 참선(參禪)이나 송주(誦呪)등이 있고 집단적으로 갖는 의례(儀禮) 의식(儀式)과 수련(修練)이 있으며 그와 같은 종교행위를 통하여 신앙심을 강화시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계율(戒律)을 지켜서 윤리적(倫理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게 된다.

(3) 종교집단

종교는 대개 창시자(創始者)가 있어서 교리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수도로서 실천적 체험을 얻은 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교화(教化) 또는 전도

(傳道)하므로써 종교적 집단 즉 교단(敎團) 또는 종단(宗團)을 이루게 된다. 교단이나 종단이 차차 커짐에 따라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교단의 발전은 역사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역사가 흐름에 따라 교리도 보완되고 실천도 다듬어지며 교단이나 종단조직도 개선되어 나가게 되어 있다.

2. 대순진리회의 3대 기초

(1) 이론적 기초 - 대순사상론

1) 대순사상의 우주관 · 천하대순론

우주(宇宙)의 우(宇)는 방위(方位)와 상하(上下)의 공간(空間)이요 주(宙)는 옛날과 오늘과 미래의 시간(時間)이다. 우주는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간과 시간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尺度)가 있다. 중요한 공간으로는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사방(四方)에 28숙(宿)의 성좌(星座)가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시(四時) 24절기(節氣)가 있다.

28숙은 동(東)에 각(角) 항(亢) 저(底) 방(房) 심(心) 미(尾) 기(箕)요 북(北)에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벽(壁)이요 서(西)에 규(奎) 루(累) 위(胃) 묘(昴) 필(畢) 자(紫) 삼(參)이요 남(南)에 정(井) 귀(鬼) 유(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이다.

24절기는 봄에 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요 여름에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요 가을에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이요 겨울에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이다.

이와같은 우주 구성은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우주의 운행은 도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무경(玄武經)에는 주우영가(宙宇詠歌) 주우수명(宙宇壽命)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주우(宙宇)라는 말은 우주(宇宙)를 거꾸로 한말이다. 이것

을 선천(先天)은 우주(宇宙)시대요 후천(後天)은 주우(宙宇)시대인데 선천시
대부터 후천시대로 전환(轉換)함을 뜻한다. 선천의 도수가 일그러져 우주가
바로 서지 못하여 여러 가지 재앙이 생기므로 상제께서 그 도수를 바로잡아
우주를 개조(改造)하여 살기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다.

태초에 태극(太極)이 음양이기(陰陽二氣)로 갈라지고 음양이 오행(五行)인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를 이루는데 일음일양(一陰一陽)이 정음정양(正陰正
陽)으로 조화(調和)를 이루어 상생(相生)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양이
부조화(不調和)를 이루어 상극(相剋)회로를 밟은 것이 선천도수였다. 즉 금극
목(金克木) 목극토(木克土) 토극수(土克水) 수극화(水克火) 화극금(火克金)의
상극회로를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상생회로를 취하는 것이 후천도수이다.

선천 상극도수에서는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가 부정적(否定的)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후천상생도수에서는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이 긍정적(肯定的) 방향으로 돌아간다.

현무경에 「수화금목이 때를 기다려 이루는데 수는 화에서 생기니 그런 까
닭에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水火金木待時以成水生於火故天下無相剋之
理)고 하였는데 금목이 상극하고 수화가 상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는 화에서
생기니 수화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이 된다고 하여 선천의 도수를 역전(逆
轉)시켰다. 우주가 처음 생긴 것은 선천개벽(先天開闢)이요 그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오는 것을 후천개벽(後天開闢)이다. 그 후천개벽을 주도하는 분이 상
제이며 그 상제는 천하를 대순하고 있다는 것이 대순사상의 우주관이다.

천지인삼계(天地人三界)가 일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체를 이루기 때문
에 우주의 주재자(主宰者)인 상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우주를 대순(大
巡)하여 혹은 상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혹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며 혹은
과거에 나타나고 혹은 미래에 나타나서 자유자재로 현신(顯身)할 수 있다.
이것이 대순의 진리다. 상제가 대순한다는 것은 그 상제와 일심동체인 우주
가 대순한다는 것인데 이 천하대순사상은 지금까지의 우주관을 크게 발전시
킨 위대한 사상이다.

지금까지의 우주관은 정지적 고정적(靜止的 固定的) 우주관이었다. 데카르

트(Rene Descart, 1596~1650) 뉴튼(Jsaac Newton, 1642~1727)에 의하여 완성된 우주관에 있어서는 우주에는 절대공간(絶對空間)과 절대시간(絶對時間)이 있고 우주는 마치 기계(機械)처럼 절대법칙(絶對法則)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를 발표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연속체(連續體)로서 시공간(時空間)이라는 통합(統合)된 사차원구조체(四次元構造體)로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의 속도(速度)에 의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피차간에 상대적인 위치에 있고 절대시간이나 절대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상호 운동속도에 의하여 공간은 짧아지고 시간은 길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천문학이 우주는 결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동을 계속하여 팽창을 하고 있으며 또 팽창이 극에 달하면 다시 수축할 것이라는 우주 운동설(宇宙運動說)도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와 우주운동설은 대순사상의 천하대순사상과 비슷하다. 말하자면 대순사상은 종교적 계시로 얻은 진리이지만 최신 과학사상과도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2) 대순사상의 인생관 · 인존시대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신체는 하나의 물질(物質)이다. 또 인간의 신체는 생명(生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또 인간은 의식(意識)과 정신(精神)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의 인간이 되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느냐 또는 오랜동안의 생존경쟁으로 지금의 모양으로 진화하였느냐하는 문제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인간이 동물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동물중에서 가장 존귀(尊貴)한 것은 누구도 부인못한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보다 체격이 튼튼하고 오래사는 동물도 있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높은 의식(意識)이 있어 그 의식으로 말미아마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있다. 동물중에서 하위에 속하는 것일수록 의식이 약하고 고등동물일수록 의식수준이 높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의식이 가장 높다.

인간 가운데에도 의식수준이 높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존엄성은 커진다.

의식이라는 것은 첫째로 무엇을 알아내는 인식력(認識力)이요 둘째로는 무엇을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력(批判力)이요 셋째로 자기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實踐力)이다. 동물 가운데에는 인식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식 정도가 저급하다. 인간은 깊은 사색과 경험을 통하여 사물의 진실을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동물의 경우는 그저 단순한 감각이나 경험등으로 어떤 사실을 알 뿐이다. 동물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지만 사람의 인식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靈界)나 신계(神界)의 일까지도 알 수 있다. 또 사람에게서는 현실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의 과거는 어떠하였으며 지금의 현실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예견(豫見)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이상형(理想型)을 설정하여 현실을 이상형에 비치어 참과 거짓, 착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가려낸다. 이것이 가치판단(價値判斷)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다른 동물의 세계에는 볼 수 없다. 또 가치판단이 있어 일정한 신념이 생기면 그 신념대로 행하는 실천력도 다른 동물에는 없다. 이리하여 인간의 의식이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면 그것은 신령(神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신령세계가 동물에게는 없다.

다른 동물은 그저 본능적 생리적(本能的 生理的)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심리적(心理的) 움직임이 강하고 나아가서는 깊은 의식활동을 통하여 영리적(靈理的) 신리적(神理的)으로도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활동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인간은 그저 동물의 영장(靈長)일뿐 신령(神靈)과는 다르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

신(神) 신령(神靈) 신명(神明)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므로 다른 동물들은 그 존재를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창조론(創造論)에서는 신이 먼저 존재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나 진화론(進化論)에서는 인간이 아주 저급한 동물에서 진화하였다고 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창조론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신을 창조한 셈이다. 신은 선천적(先天的) 존재이거나 후천적

(後天的) 존재여부를 막론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있는 존재이다.

서양사람은 창조설을 취하여 신과 인간을 엄격하게 구별하지만 동양사람은 조화관(造化觀)은 천지인일체(天地人一體) 만물동근(萬物同根)이라고 생각하고 신과 인간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신과 인간과의 위계질서는 분명하여 인간은 어디까지나 신의 아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래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하여 신과 인간의 동격(同格)을 믿으면서도 신의 존엄성을 생각하여 신인동격(神人同格)이란 것을 주장하기를 주저한 것이 동양의 형편이었다. 그것을 인간이 신을 모시고 있다(侍天主)라고 감히 말하여 인내천(人乃天)을 주장한 최수운이 인간의 지위를 과격적으로 높였다. 그런데 강증산은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더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이니라」(전경 교법 2장 56절) 「선천에는 모사재인(謀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고 하였으나 후천에는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하리라」(전경 교법 3장 35절)고 한 것은 실로 폭탄적인 선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인간의 운명이 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운명이 인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인존사상이야말로 지금까지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대순사상의 세계관 - 조화선경론

인류의 역사는 평화보다도 전쟁이 더 많았다. 상생(相生)하여야 할 인간들이 상극(相剋)하게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이 스스로 동물로 자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동물의 영역을 뛰어넘고 신을 부리는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인간들은 생활하여 나가는 가운데 문화(文化)를 창조하고 문명(文明)을 형성하는데 그 문화나 문명은 서로 도와서 인간생활의 행복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동양의 음양(陰陽)사상에 의하면 음과 양과 같이 성질이 서로 다른 존재가 화합하여 일체를 이루게 되는데 대해 서양의 변증법(辨證法) 사상에

의하면 나와 남과 같이 성질이 서로 다른 존재는 어느 한 쪽이 부정되어야만 다른 한 쪽이 살아남는다. 서양의 기독교와 중동의 이슬람교와 유대민족의 유대교는 본래가 하나의 뿌리다. 그 하나의 뿌리가 풍토와 민족의 생활 차이로 다른 형태의 종교로 분화되었다. 본래 유대인 모세가 세운 유대교를 유대인 예수가 개혁한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그리스의 인문사상을 흡수하여 서양의 종교가 되었다. 그 기독교를 다시 아랍인인 마호메드가 개혁한 것이 이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로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기독교는 로마카톨릭과 그리스 정교(正敎)와 신교(新敎)로 갈라져서 그사이 원만하지 못하고 이슬람교도 「순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는 그 창시자도 다르고 생긴 지방도 다르며 교리도 같지 않지만 유불선 삼교(儒佛仙 三敎)사이에는 그다지 큰 갈등없이 공존하여 왔다.

인류는 민족에 따라 각각 다양한 다른 문화를 가짐으로서 서로 보완하여 공생하게 되는 것이요 인류의 문화가 획일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생활 내용이 단조로울 것이다. 그런데 상생하고 공존하여야 할 문화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다. 20세기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도 문화적 갈등이었고 미국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文明衝突論)도 그러하다. 그런데 대순사상에 있어서는 문화조화론(文化調和論)으로 앞으로의 세계가 평화사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화선경론(造化仙境論)이다.

전경 교법 3장 23절에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걸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할 지니라」하였고 또 전경 예시 13절에는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리라」하였고 또 전경 공사 3장 5절에는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反目爭鬪)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解冤)으로써 만고의 신명(神明)을 조화(造

化)하고 천지의 도수(度數)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선경(仙境)이 세워지리라」하였는데 여기에 평화적 이상사회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전경 예시 14절에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명월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개화삼천국(文明開化三千國) 도술운통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가 바로 조화 선경이다.

(2) 실천적 기초 - 대순수도론

대순진리회의 실천적 기초는 의식으로 익혀진 대순사상을 행위로 옮기는 것이다. 사상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먼저 굳은 신앙심이나 깊은 신념을 다지는 신조(信條)가 필요하고 그 신조에 따라 수도(修道)를 해야만 한다. 신조는 의지를 굳게하고 심령(心靈)을 맑게 하며 수도는 도통하기 위한 결의(決意)와 불굴(不屈)의 의지이다.

신조로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가 있는데 사강령은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요 삼요체는 성(誠) 경(敬) 신(信)이다. 그리고 수도에는 공부(工夫) 수련(修練) 기도(祈禱)가 있다.

1) 대순 수도의 신조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4강령과 성경신의 3요체는 수도하는데 필요한 신조인데 믿음이 굳어야 수도가 확실하게 이루어 진다.

수도는 도통하여 진경에 이르기 위한 노력인데 도통한다는 것은 상제(上帝)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요 진경이라는 것은 도통하여 진인(眞人)이 된 사람 즉 신선이 사는 세계다. 그러므로 수도하는데 있어서는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항상 상제를 공경하고 영통(靈通)이 되도록 단전(丹田)을 연마하여야 하는데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정성스럽고 성실(誠實)한 마음과 공경(恭敬)하고 경건(敬虔)한 마음과 굳은 신앙(信仰)과 신념(信念)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안심 안신 경천 수도를 계속하면 도통진경에 이른다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실천적 기초로서의 신조이다.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을 마음이요 마음의 현상(現象)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이런 까닭에 마음과 몸은 일체가 되어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안정된다. 그러므로 안심과 안신은 일체를 이룬다. 또 하느님(상제님)은 구천(九天)의 높은 곳에 계시는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계시므로 경천한다는 것은 위로 우러러 하느님을 받드는 동시에 아래의 우리 몸의 단전(丹田)에도 하강하시고 계시므로 단전수련을 하는 수도와 일치된다.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은 늘 마음과 몸, 하늘과 땅의 일체를 의식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신의 삼요체도 마음과 몸,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정성과 성실, 경건과 공경, 신앙과 신념이 일체를 이룬다. 하늘을 향한 것이 정성이요 인간을 행한 것이 성실이며 하늘을 행한 것이 경건이요 사람을 행한 것이 공경이며 하늘을 향한 것이 신앙이요 사람을 향한 것이 신념이다. 이 성경신의 3요체는 오늘날 인간가치의 3요소인 진선미(眞善美) 유교의 지인용(智仁勇)의 3덕(三德) 불교의 불법승(佛法僧)의 3보(三寶)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의 자검양(慈儉讓)의 3보 기독교의 신망애(信望愛)의 3행(三行)와 같이 대순진리회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이 성경신의 3요체는 이미 수운선생이 강조한 것인데 증산선생이 그것을 이어받아 이것을 중요시하여 윤리계율(倫理戒律)로 삼았으며 현무경(玄武經)에서는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이라고까지 하였다.

2) 대순수도의 방법

대순수도의 방법은 성경신을 굳게 지키고 안심 안신하여 위로 하느님을 모시고 아래로 단전을 연마하는 것인데 이에 공부(工夫)와 수련(修練)과 기도(祈禱)가 있다.

공부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呪文)을 송독(誦讀)하는 것이요 수련은 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없이 기도주(祈禱呪) 또는 태을주(太乙呪)를 송독하는 것이다. 기도는 평일(平日)기도와 주일(主日)기도가 있는데 평일기도는 매일 축미시(丑未時)에 자택에서 행하는 것이요 주일기도는 갑기일(甲己日)에 자오묘유시(子午卯酉時)에 지정된 장소 또는 자택에서 행하는 것이다.

수도에 많이 쓰는 기도주는 시천주(侍天主) 즉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

事知)라는 것으로 수운이 상제로부터 받은 것이요 태을주(太乙呪) 즉 「흠치 흠치 태을 천상원군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하」(吽哆吽哆 太乙 天上元君 吽哩哆嘢都來 吽哩喊哩 娑婆啊)인데 김경훈(金京訃)이 상제로부터 받은 것을 증산이 보완한 것이다.

(3) 조직적 기초 - 대순종단론

대순진리에 의한 수도자가 늘어감에 따라 그 진리를 널리 펼치는 포덕(布德)이 늘어가게 되면서 교운(教運)이 활발해지고 종교조직(宗教組織)이 커짐에 따라 교리체계(敎理體系)의 정비와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도인(道人)들의 행동규범과 그 도인들을 관리하는 행정체계(行政體系)가 필요하게 되어 여기에 대순종단 조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원시조직

현무경에 천문(天文) 음양(陰陽) 정사(政事)란 말이 있는데 이중에서 천문·음양은 교리에 관한 것이요 정사는 조직에 관한 것으로 추측된다. 천문 음양은 우주(宇宙) 즉 28숙(宿)의 공간(宇)과 24절(節)의 시간(宙)을 주관하는 신장(神將)이 있는 동시에 명부(冥府)로서 조선명부(朝鮮冥府) 청국명부(淸國冥府) 일본명부(日本冥府)가 있어 여기에 전명숙(全明淑) 김일부(金一夫) 최수운(崔水雲)이 주관하도록 되어있다.(전경 공사 1장 7절) 또 선도(仙道) 불도(佛道) 유도(儒道) 서도(西道)의 각 종단(宗團)의 종장(宗長)으로서 최수운(崔水雲) 진묵(震默) 주회암(朱晦庵) 이마두(利馬竇)를 세운다고 했다.(전경 교운 1장 65절)

이것은 증산이 직접 생각한 세계적인 종단조직인데 자체내의 조직체로는 김경학(金京學)의 집에서 대학교가 설치되고(전경 교운 1장 32절) 차경석(車慶石)의 집에 포정소(布政所) 또는 포덕소(布德所)가 설치되고 동곡만국의원(銅谷萬國醫院)내에 후비소(后妃所)가 설치되었다.(전경 교운 1장 54절)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원시조직(原始組織)이다.

2) 종단조직

증산이 화전한 후에는 종도(從徒)들이 자신들이 거처하는 곳을 중심으로 포덕하게 되어 종교조직체 즉 종단(宗團)이 생겼다. 또 직접 종도는 아니지만 강령(降靈)을 받아 종단을 조직한 것도 생겼다.

조정산(趙鼎山)이 태인(泰仁)에 무극도(無極道) 부산(釜山)에 태극도(太極道)의 종단을 세우고 박한경(朴漢慶)이 그 도통을 이어받아 대순진리회의 종단을 설립했다.

3) 행정조직

대순진리회는 중앙본부(中央本部)에 도전(都典)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 포정원(布政院) 종무원(宗務院) 감사원(監査院)이 있고 각 지방에 도장(道場)에 종무원장이 있다.

도인은 포덕연원(布德淵源)의 수효와 교화실적(教化實績)에 따라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선정부(宣正部)에는 선감(宣監-포덕연원수 천호(千戶)이상), 선사(宣師-포덕연원수 300호이상), 선무(宣務-포덕연원수 100호이상)가 있고 교정부(教正部)에는 교감(教監), 교령(教令), 교정(教正)이 있다.

박한경 도전이 화천후에는 아직 도전이 선출되지 않았으며 중요 현안은 본부도장, 포천도장, 속초도장등 중요도장의 종무원장과 종의회의장 감사원장 재단이사장의 합의하에 처리토록 되어있다.

Ⅲ. 대순진리회의 신조개론

1. 대순진리회 요람의 설명

대순진리회 요람(大巡眞理會 要覽)에서는 신조인 사강령과 삼요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안심은 편벽(偏僻)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양심으로 돌아가서 당치 않은 허욕에 팔리지 말고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신은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하며 도리(道理)에 알맞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의리(義理)와 예법(禮法)에 맞지않는 허영(虛榮)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경천은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지나깨나 잊지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시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는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청심(淸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과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하라고 했다.

성은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하기위해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성(精誠)이라 한다고 하였다.

경은 심신(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고 하였다.

신은 한마음을 정하고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에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하여 기대한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이 신이라고 했다.

신조는 대순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실천강령이요 실천자세인데 이것은 곧 윤리규범(倫理規範)이요 종교계율(宗教戒律)이다. 여기서는 특히 사람은 본연적으로 양심(良心)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심으로 하느님을 가까이 모시며 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신조의 요점이라고 할수 있다.

2. 정대진 이사장의 견해

대순사상논총 제1집(1996)에 정대진(鄭大珍) 대진대학교 이사장은 「대순사상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먼저 신조에 대하여 「종지가 대순사상의 이념적 총체를 나타낸 것이라면 신조는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법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 「강령이란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기 위한 훈전(訓典)이 될 수 있는 대원칙을 말하며 요체란 실천수행하는 사람

이 반드시 그 몸에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자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안심이란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인데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 또는 도리를 다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안신이란 「모든 행동을 범례에 합당케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것」이라고 하고 전경에 병은 자기로부터 발생하며 대병지약(大病之藥)은 안심안신이라고 하였기때문에(행록 5장 38절) 병이라는 것도 아주 큰병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안심안신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천이란 신을 공경한다는 뜻인데 신의 존재를 맞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참다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하고 신은 인간 초월적이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천의 자세는 항상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상제를 신앙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도는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는 사람의 몸에 구현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는 어떠한 사욕이 없는 청정무구한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이나 물욕으로 탁해지는 것을 수도를 통해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심연성(修心煉性)과 세기연질(洗氣煉質)이 있는데 수심은 때묻은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심(正心)으로 돌리는 것이요 연성은 인간 본래의 청정무구한 본성으로 귀일하도록 성품을 연마하는 것이요 세기연질이란 인간의 기질이 흐르기 쉬운 감정적인 차원을 극복하고 우주의 가장 바른 원기(元氣)로서 채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성은 「진실로」 「참으로」의 뜻을 지니는 추상적 가치인데 유교(儒敎)경전의 중용(中庸)에서는 「성이란 하늘의 도」라 한 것과 대학(大學)에도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한 것과 조선시대 유학자 이율곡(李栗谷)이 「성이란 하늘의 진실된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이다」 한 것들을 들어서 성은 무엇보다도 가식되지 않고 본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다. 또 경에 대해서는 공경(恭敬) 경건(敬虔) 삼가함

의 뜻을 지니는데 성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점이라면 경은 노력을 들여나가는 과정의 요체라고 하였다. 경은 몸가짐을 삼가는 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禮)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신에 대해서는 첫째 마음의 정한 바를 어떠한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마음을 지속시켜 기대한 바 목적을 꼭 달성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상제에 대한 영시(永侍)의 정신을 확립하여 나와 상제사이의 불변하는 믿음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IV. 심신(心身)이란 무엇인가

1. 생기론과 기계론

대순진리회의 신조인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4강령 중에서 먼저 안심과 안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심과 안신을 살펴보려면 먼저 마음이란 무엇이며 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몸의 근본이 되는 생명이란 무엇이나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생명의 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 생명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 마음이라는 것도 일종의 의식(意識)인데 그 의식은 감각(感覺)을 의식하는 저급의 의식단계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심리적(心理的) 단계를 거쳐 심리의 심층부(深層部)에 있는 영혼(靈魂)의 영역이나 더 나아가 신(神)의 단계까지 의식하는 아주 고도의 의식작용까지 있다. 저급한 동물은 그저 본능적(本能的)인 생리적(生理的) 감각적(感覺的) 의식에 머무르지만 인간은 고도의 의식활동을 하게 되며 같은 인간이라도 그 소질의 차이에 따라 그저 심리적 의식에 머무는 단계도 있고 나아가 영리적(靈理的) 신리적(神理的) 단계에 까지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와같은 고도의 의식작용은 정신(精神)이라고 한다.

신체에 관해서는 생물학(生物學) 생리학(生理學) 의학(醫學)등에서 많이 연구되었고 의식에 관해서는 심리학(心理學) 윤리학(倫理學) 종교학(宗敎學) 신학(神學) 미학(美學) 문학(文學) 정신분석학(精神分析學)등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150억(億)년전에 대폭발(Big Bang)으로 우주가 생기고 은하계(銀河系)와 태양계(太陽系)와 지구가 탄생한 것은 46억년전이며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인 단세포(單細胞)가 탄생한 것은 그로부터 10억년 뒤라고 한다. 그로부터 생명의 진화가 계속되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백만년전이라고 하며 오늘의 인류의 조상은 약2백만년 전이며 그로부터 인류의 의식이 진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론(進化論)에 대해 신이 창조하였다는 창조설(創造說)도 아직 유력하다. 또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도 기계론(機械論)과 생기론(生氣論)의 대립이 있다. 기계론은 생명은 복잡 미묘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생물과 다름이 없는 물리적 화학적(物理的化學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460-360 B.C.)의 원자론(原子論)이나 근대의 데카르트가 동물은 시계(時計)같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물리학적 법칙에 따른다는 동물기계론(動物機械論)이 그 대표이다. 이에 대해 생기설은 생명은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질과 전연 다른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마음이라든지 혼(魂)이라는 것은 물리화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생명력(生命力)이라든지 신(神)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생기설은 17세기에 동물기계설이 나올때까지 동서양에 공통으로 신봉되었다.

생명에 관해서 기계론과 생기론의 대립은 마음과 몸을 따로따로 보는 이원론적(二元論的) 견해와 마음과 몸이 다르게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는 일원론적(一元論的) 견해의 차이이다. 과학이 발달하기까지는 동서양이 몸과 마음에 관해서 일원론적 견해를 가져 마음의 작용이 몸에 미치고 몸의 작용이 마음에 미쳐서 몸과 마음은 서로 떼일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환원주의(還元主義)이래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의 이원론(二元論)이 지배적 경향을 이루어왔다.

근대과학은 코페르니쿠스(Kopernics, 1473-1543)의 지동설(地動說)에서 시작 된다고 한다. 그전까지의 천동설(天動說)은 신(神)을 중심으로하는 우주질서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동설로 지구를 세계의 중심에서 추방하고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찾게 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갈릴리오(Galilei, 1564-1642)의 실험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데카르트의 환원주의로 근대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세계관(機械論的 世界觀)이 확립되었다.

데카르트는 유명한 방법서설(方法序說)이란 저서를 통하여 그의 과학적 사고를 전개하였다. 그의 과학적 사고는 철저한 회의(懷疑)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고대 그리스이래의 이원론으로 작은 요소로 쪼개고 조금이라도 의심쩍게 생각되는 것은 이것을 배척한 끝에 최후에 남은 것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결론을 얻었다. 데카르트의 사유의 근본틀이었던 그리스의 이원론은 나와 너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서방의 상업주의적 원리였다. 세계를 주체(主體)와 객체(客體)로 나누고 윤리(倫理)를 선(善)과 악(惡)으로 나누고 인간을 육체(肉體)와 정신(精神)으로 나누는 변증법(辨証法)적 사고다. 데카르트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 육체라든지 지각같은 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오직 사유(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만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유(思惟)하는 것(정신)과 연장(延長)된 것(물질)은 엄밀히 분리 독립시켰다.

이리하여 데카르트는 물질보다도 정신을 더 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연장된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을 이루는데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복잡한 현상을 작은 구성요소(要素)로 환원(還元)시키는 요소환원주의(要素還元主義)에 의하여 자연계의 움직임도 자동기계(自動機械)와 같이 단순한 활동을 하는 요소로 환원되어 기계론적 세계관(機械論的 世界觀)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동물도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생명은 물리 화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생기설(生氣說)과 달리 생명이 복잡미묘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생물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생명도 자연과학의 해석과 법칙에 따른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생화학(生化學)이 발달됨에 따라 동물기계론 인간기계론은 더욱 발전되었다. 생화학의 총수라고 불리워지는 오파린(Oparin, 1894~)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물질 진화설을 주장하여 원시대기(原始大氣) 가운데나 우주공간(宇宙空間)에 있었던 간단한 화합물(化合物)에서 간단한 유기물(有機物) 고분자유기물(高分子有機物)을 거쳐서 생명에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생기설(生氣說)에서는 생명은 물질과는 전연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생명체에는 혼(魂)이라든지 마음(心)이란 것이 있어 이것은 물질로서는 설명할수 없으며 이 생명체를 보존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질서라든지 생명이 생기기위해서는 신(神)이나 어떤 불가사의의 생명력 같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특수한 힘이 지배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발달이 절정에 이른 최근에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인 기계설(機械說)에 회의를 품고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인 생기설(生氣說)이 부활하는 듯한 경향이 있다. 이원론은 서양적 사고방식에 연유하고 일원론은 동양적 사고방식에 유래하지만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서양에서 이원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 동양의 일원론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갈포니아 대학 물리학자 카프라(F.Kapra)는 1975년 「도물리학(道物理學 - The Tao of Physics - 우리말 번역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란 저서를 내어 물질의 입자(粒子)가 보여주는 세계상이 동양신비사상에 비슷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철저한 유물사상에 저진 물리학에서 신(神)이라든지 신비주의(神秘主義)같은 종래 물리학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배척받는 것들이 도입(導入)되고 있어 과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이것은 신과학(뉴사이언스)라고 부르고 있다. 카프라는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세계를 단순한 기계로 보는 것만으로는 전체상(全體像)을 파악할 수 없다하고 기계론적 세계관 대신에 전포괄적(全包括的) 세계관이 필요하다 하였다. 카프라는 물리학과 신비주의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관되고 결합되어 있는 궁극적 실재(窮極的 實在)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는 힌두교 불교 선(禪) 도교의 세계관을 인용하면서 포괄론적(包括論的) 관점에서 세계를 통일적으로 보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포괄론적 관점을 시스템(system)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공상(空像)으로서의 세계」에서 존재의 계층(레벨, 階層)이 있다하고 물질레벨, 생명레벨, 심(心)적레벨, 영

(靈)레벨 같은 계층이 있어 물리학 이론은 물질레벨의 무제를 다루고 신비주의는 심적 또는 영적레벨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물리학과 신비사상을 동일단계(스테지)에 두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최근의 신과학이론은 데카르트의 환원주의와 기계론적 생명관을 후퇴시키고 마치 새로운 생기설을 부활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다. 무엇이던지 갈라놓고 그 부분에만 정신을 집중시키는 분석적 방법에 대하여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는 종합적 방법이 새로 대두하고 있다.

2. 유기론적 심신관

몸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기론과 기계론이 있는데 이와같이 고래로부터 관념론(觀念論)과 유물론(唯物論)으로 이원적으로 대립되어온 서양사상을 일원적으로 종합한 것이 동양의 유기론(唯氣論) 사상이다.

기론(氣論)은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다. 유교의 이기설(理氣說)은 조선 왕조시대의 철학 이론의 기초가 되어 많은 발전을 보았다. 유가에서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 기추가 되어 혹은 주리파(主理派) 혹은 주기파(主氣派)로 갈라지기도 하였다. 이기이원론에서 보는 기는 정신적인 이(理)에 대해 물질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교에서는 기일원론(氣一元論)으로 기를 근본으로 생각한다.

조선왕조시대의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은 유학자이면서 기(氣)를 존중했다. 율곡 이이(栗谷 李珣)도 주기파라고 불릴 정도로 기를 중요시했고 녹문 임성주(鹿門 任聖周)는 유기론을 주장했고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이기설을 비판하였으며 혜강 최한기(惠崗 崔漢綺)는 신기론(神氣論)을 주장했고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는 지기론(至氣論)을 주장했고 증산 강일순(甌山 姜一淳)은 천하대순론 말하자면 순기론(巡氣論)을 주장했다.

기(氣)라는 개념은 동양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지만 서양말로써 이에 해당하는 적당한 말이 없다. 기(氣)라는 것은 무한한 공간(空間)과 무한한 시간(時間)에 걸쳐 있으며 물질(物質)과 정신(精神)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과 정신을 포용하며서 사는 동양인에게는 기라는 말이 매우 자연스러우나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시간을

갈라놓고 정신과 물질을 따로 보는 서양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주변에서 기(氣)라는 말이 많다. 기후(氣候)나 공기(空氣)나 기상(氣象)이니 하는 말은 자연적 현상을 의미하고 기분(氣分)이니 기품(氣稟)이니 기질(氣質)이라는 말은 인간심리적현상을 의미하고 기풍(氣風)이니 기세(氣勢)니 경기(景氣)니 하는 말은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또 기상(氣像)이니 기체(氣體)니 기골(氣骨)이니 하는 말은 정신적 의미와 물질적 신체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기후라고 하는 기와 기분이라고 하는 기와 경기라고 하는 기는 같은 말, 같은 글자이지만 각각 자연현상과 인문현상과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에 기라는 같은 글자를 쓴 것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과 사회현상 사이에 공통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상이 좋다거나 기체가 안녕하다는 것은 다만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 아울러 정신상의 건강까지도 의미한다. 이는 동양인이 생활함에 있어 정신과 물질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 늘 한데 붙어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氣라는 글자는 气와 米의 합자(合字)인데 「气」는 만물생성(萬物生成)의 근원으로서 천지에 차서 부동(浮動)하는 것인데 그 부동하는 모습이 수증기나 구름이 공중에 떠 있는 모양인 「气」로 상형화(象形化)되었다가 이것이 「气」라는 글자가 된 것이다.

「米」는 인간이 먹는 곡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의대표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氣라는 글자는 천지간의 현상과 인체(人體)나 심리(心理)나 사회적 경향들을 다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氣라는 것으로 천지만물과 인간현상과 사회현상을 다같이 설명하게 되어있다.

이 기(氣) 사상은 원래 도교(道敎)나 노장(老莊)사상에 있어서는 우주의 궁극적 존재로 여겨서 기일원론(氣一元論)이다. 노자 도덕경(道德經)에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엮고 양을 품어서 중기(또는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中气(冲气)以和)는 데서 기의 중요성을 연설하고 있다. 장자도 천지의 일기(一气)니 천하의 일기(一气)니 음양의 기등

기에 관한 말을 많이 했다.

기사상은 정신과 물질이 일체요 만물이 일체라는 사상이다. 정신과 물질이 다르고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서양식 사고방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신은 어디까지나 정신으로 물질과는 다른 것이요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는 각각 다른 법칙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서양식 사고방식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의 일화가 있다. 1960년대 서울대학교에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시드니훅크(Sydney Hook)박사를 초월하여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당시 고려대학교에 있었던 필자도 다른 교수들과 같이 그 강연을 듣고 흥미가 있어서 그를 고려대학교에 초청하여 좌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그때 고려대학교에는 동양철학자인 이상은(李相殷)교수와 김경탁(金敬鐸)교수가 계셨는데 좌담회 석상에서 시드니교수에게 귀하는 물질과 정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동양에는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기(氣)라는 관념이 있다고 하였더니 그는 물질도 되고 정신도 되는 그러한 애매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한 것을 본 일이 있다.

필자는 1980년대 미국의 한 학술회의에서 기에 관한 발표를 한일이 있고 그 예비 회의를 일본에서 한일이 있었다. 이때 중국의 기공(氣功)을 연구하는 학자가 어떤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 청년이 스테인레스 스푼을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 구부러지는 시험을 한일이 있었다. 중국학자는 이것을 인간에서 나오는 기의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동석했던 영국 생물학자 메란비(Melanby) 교수는 그러면 아무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었더니 중국학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수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수련을 받은 사람은 다 기로서 스푼을 구부러트릴 수 있느냐 물었더니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그랬더니 메란비 교수는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기가 정말 존재한다면 누가 하여도 다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연에 속하는 일이요 우연은 필연성이 없으므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을 알고 있다. 가

령 공기같은 것도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볼수는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조상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 살아계신 부모정도나 볼수 있지 먼조상은 볼수 없다. 「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 작용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에 입각하여 인간의 시체(屍體)를 해부하여 알려진 신체 구조에 의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이 서양의학인데 동양의학에서는 해부학적(解剖學的)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의 통로인 경락(經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침·뜸 따위로 그 경락의 자극을 통하여 병을 치료하고 있다.

과학이 좀더 고도로 발달되면 기의 실재도 알려질 날이 있겠지만 동양사람들은 기가 존재하고 그 기는 정신과 물질의 작용을 겸하고 그 기가 우주 만물의 기본요소로서 그런 까닭에 천지인은 모두 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의 사상은 중국에서 발달되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먼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단군설화는 종교의 신선사상이나 도교의 원류로 생각되고 있다. 갈홍(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에는 중국의 황제(皇帝)가 청구(靑丘)에 와서 자부선인(紫府仙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가르침이란 바로 신선사상이요 신선이란 기의 수련을 통하여 불로장생하는 사람이다.

신선사상은 불로장생을 원하는 사상인데 불로장생을 원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쾌적하여 이른바仙境(仙境)을 이루어야 한다. 사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염세(厭世)사상이 생기어 현세(現世)에 장수하기 보다는 빨리 내세(來世)의 극락(極樂)세계나 천당(天堂)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국 문화의 발상지인 황하(黃河)유역에는 홍수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황사(黃砂)현상대문에 환경도 좋지 않다. 그런 곳에서 장수하기를 바랄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민족의 정착지인 백두산(白頭山)이나 묘향산(妙香山)이나 금강산(金剛山)일대는 그야말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가이仙境이라고 할만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자연의 기(氣) 때문에 자연히 장수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자연과 친화하고 그 자연과 일체를 이룬

다고 생각했다. 우주의 주재자인 하느님(桓因)은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다. 서양의 우주창조설(宇宙創造說)에 의하면 태초에 하느님이 따로 계시어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라는 것으로 믿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와 동신일체(同身一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한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사람은 동기(同氣)일체다. 단군설화에서 천지인이 일체라는 사상은 기일원론적 사상이요 단군이 산의 신선(山神)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신선사상이다.

기사상은 한국에서 발생하였지마는 중국에 들어가 많은 발전을 보았다. 한국에는 중국과 접촉하기전에 이미 풍류도(風流道)라는 고유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접화군생(接化群生)하는 사상인데 접화군생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을 다 살린다는 사상이다. 접화군생하여 모든생물과 공존하는 것이 풍류도인데 인간이 모든 생물과 같이 오래산다는 것이 바로 신선사상이다. 이 신선사상이 중국에서 선도(仙道) 또는 도교(道敎)로 발달되었다. 나중에 중국의 선도나 도교가 한국에 거꾸로 유입되자 한국에 본래 있던 신선사상을 중국의 신선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러 나라국자(國)를 부쳐서 국선도(國仙道)라고 한 것을 보아도 신선사상 즉 기사상의 원류가 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 주조(主潮)를 이루는 조선왕조의 유교시대에도 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서화담은 우주의 본질은 기(氣)이며 후에 이(理)와 기가 같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 기운데 내제한 것이니 이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는 무시무종(無始無終)하고 영원불멸한다고 했다.

이율곡은 이기(理氣)에 대해서 이원적일원론(二元的一元論)과 주기론을 주장하였는데 서화담과 같은 기일원론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성리학(性理學)의 전통에 따라서 회암주희(晦庵朱熹) 즉 주자(朱子)와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이기이원론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 퇴계가 이기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기보다 이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주리론파(主理論派)라고 불리우는데 대해 이율곡은 주리론자가 이는 기보다 앞서고 이는 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

하는데 반해서 이기에 선후가 없고 어느 것이 우위되는 것이 없다는 말하자면 이기동가치론(理氣同價值論)을 주장하였는데 이의 우위를 주장하는 주리론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주기론(主氣論)이라고 부를 따름이다.

이퇴계는 주자의 학설에 충실하여 우주의 본체는 태극(太極)인데 태극은 이(理)요 이는 기(氣)와 대립된다고 하였다. 이는 형이상학적 도(形而上學的 道)로 만물을 발생케 하는 정신적 원리요 기는 형이하학적 기(形而下學的 器)로서 물질적 재료이다. 이 이(理)가 기(氣)를 동정(動靜)시키어 기가 운동하여 만물이 발생한다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심성(心性)도 본연(本然)의 성(性)과 기질(氣質)의 성(性)의 둘이 있어 본연의 성은 이요 기질의 성은 기가 된다. 인간의 심성 가운데 순전히 선하다고만 볼 수 있는 사단(四端) 즉 측은지심(惻隱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이에서 발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칠정(七情) 즉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은 기에서 발한다. 사단은 이가 발동하는데 기가 이에 따라가는 것이요(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동하는데 이가 이것을 탄것(氣發而理乘之)이라고 하여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이율곡은 이와 기는 본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이물(二物)도 일물(一物)도 아닌 비일비이물(非一非二物)로서 서로가 떠날 수 없는 묘합적(妙合的) 존재로서 이는 이요 기는 기로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율곡은 이라는 것은 기의 주재(主宰)요 기라는 것은 이가 타는 것이므로 이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데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착할데가 없으므로 이기는 이물(二物)이되 일물(一物)이요 일물(一物)이되 이물(二物)이라고 했다. 그는 기는 물과 같고 이는 그릇과 같아서 모지고 둥근 그릇은 같지 않지만 그릇 가운데 있는 물은 하나인 것같이 기의 일체(一體)가 이를 통하고 이의 만수(萬殊)가 기의 국(局)이기 때문이며 사람의 성이나 물건의 성은 기의국(局)이요 사람의 이나 물건의 이는 이의 통(通)이라는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주장했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칠정도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이율곡은 이퇴계의 이기호발설을 반대하여 기발(氣發)은 인정하나 이발(理發)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심도심설(人

心道心說)에 관해서도 이율곡은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道心)이 인심(人心)안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칠정이 발할때에 이가 주(主)가 되느냐 또는 기가 주(主)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를 탄 이가 주가 되어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면 이것은 도심이 되고 이에 반하여 이를 태운 기가 주가 되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갈 때에는 이것이 인심이 된다고 하였다.

녹문 임성주는 서화담의 유기론(唯氣論)을 계승하여 우주의 본질과 마음의 본체가 모두 하나의 기(氣)라고 역설하고 만상이니 오행이니 음양이니 원기라는 것이 모두 기를 가르키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정다산은 이기설을 비판하고 실학을 대성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이(理) 즉 태극(太極)이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기(氣) 즉 음양(陰陽)속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시적(可視的)인 기는 인정하나 선험적(先驗的)인 이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만을 인정했다. 정다산은 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천주(天主)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혜강 최한기는 근대과학의 방법을 인정하여 경험론(經驗論)을 폈는데 그는 신기론(神氣論)을 주장하여 하늘의 신기와 사람의 신기는 본시 하나이며 신도 기의 정화(精華)요 기는 신의 기질(氣質)이며 신기는 지각의 주체요 기의 통로는 감각기관이라고 했다.

최수운의 지기론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주문에서 지기가 우주의 궁극적 본체인데 그것은 정신과 물질이 혼연일체된 것으로 그것은 위로서는 천주가 되고 아래로는 인간과 만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기(氣)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한 한덩어리 기운이라고 했다.(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一論學文)

3. 증산의 심신관

그렇다면 증산께서는 어떠한 심신관을 가졌는가. 전경에도 마음에 관한 구절과 몸에 관한 구절이 많다. 마음에 관해서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심경(心境)이라고도 하고 심기(心氣)라고도 하고 심사(心思)라고도 하고 심장(心臟)이라고도 하고 심령(心靈)이라고도 하였으며 심고(心告) 심법(心法)이란 말이 있으며 몸에 관해서는 신병(身病) 신열(身熱) 신수(身數)등의 말이 나오며 심신(心神)이라고 함께 쓴 말과 심신연마(心身鍊磨)라는 말이 나온다. 또 안심(安心) 안신(安身)이라는 말과 안심안신(安心安身)을 한꺼번에 쓴 경우도 있다.

전경 행록 3장 44절에는 「하늘이 우로(雨露)를 박(薄)하게 쓰면 반드시 만방의 원(萬方之怨)이 있고 땅이 수토(水土)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의 원(萬物之怨)이 있고 사람이 덕화(德化)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사의 원(萬事之怨)이 있다. 하늘의 씬, 땅의 씬, 사람의 씬(天用地用人用)은 모두 마음에 있느니라」(統在於心)하였고 이어서 전경 행록 3장 44절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鬼神)의 추기(樞機)요 문호(門戶)요 도로(道路)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출입하며 도로를 왕래하는 신(神)이다. 혹 착함(善)이 있고 혹 악함(惡)이 있는데 착한 것은 이것을 스승으로 하고 악한 것은 이것을 고친다. 내 마음의 추기요 문호요 도로는 천지에 크도다」(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關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神 或有善 或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 門戶 道路大於天地)라 하였다.

또 전경 교운 1장 66절(현무경)에는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 남북의 몸은 마음에 의존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이라고 되어있다.

또 전경 교법 3장 2절에는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고 되어있다.

이를 요약하면 마음이란 신의 통로요 또 신자체이며 그것은 천지의 중앙이며 몸은 마음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편안하다(安)는 것에 대해서는 전경 행록 3장 49절에 「편안한 때에 위험을 잊지 않고 일생을

이 계락을 좇으면 진실로 다 호남아다。」(安時不忘危 一生從此計 眞皆好男兒)라고 하였으니 편안하다는 것은 위태스럽지 않은 것이다.

다음에 안심에 관해서는 전경 행록 3장 64절에 「…형렬은 상제께서 출옥 하심을 듣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동곡으로 돌아 갔도다」 하고 전경 행록 4장 13절에는 「…한시경이 되어도 아무 기척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그는 잠에 드 나라」

또 전경 행록 5장 38절 현무경에는 「병에는 대세가 있고 병에는 소세가 있다. 큰 병에는 약이 없고 작은 병에는 혹 약이 있다. 그러나 큰병의 약은 안심안신이며 작은 병의 약은 사물탕 팔십첩이니라」(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고 했고 이어서 「큰병은 무도에서 나왔고 작은 병도 무도에서 나왔다. 그 유도(有道)를 얻으면 큰병이 약없이 스스로 낫고 작은 병도 약없이 스스로 낫는다…」(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고 하였고 이어서 의통(醫統)이라 하고 「그 아버를 잊은 자는 무도한 것이요 그 임금을 잊은 자는 무도한 것이요 그 스승을 잊은 자는 무도한 것이다. 세상에 충이 없고 세상에 효가 없고 세상에 열이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천하가 다 병들었다。」(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이라 하였고 이어서 병세(病勢)라하고 「천하의 병을 가진 자가 천하의 약을 쓰면 그 병이 곧 낫는다」(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라고 왔고 이어서 「성부 성자 성신 원형리정하여 천지도술을 받드는 약국이 전주 동곡에 있어 생사를 판단하니 대인과 대의는 병이 없나니라」(聖父 聖子 聖身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辦斷)고 하였다.

이는 안심은 마음이 위태롭지 않은 상태요 안신은 병이 없는 상태인데 마음이 편안한 것은 도통을 이루는데서 오고 몸이 병들지 않는 것은 의통(醫統)을 지키는데 있는데 그 의통도 대인대의(大仁大義)의 도를 지키는데 있으므로 결국 의통도 도통에 일치한다. 현무경에는 이어서 「성인이 천하의 직에 앞서고 천하의 업에 앞서는 것을 만들었는데 작이라는 것은 의요 업이라는 것은 통이다. 이것이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다。」(聖人乃作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 聖之職 聖之業)라고 하였는데 의통

(醫統)과 성직(聖職)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

강증산은 최수운의 지기사상을 이어받아 순기론(巡氣論)으로 완성시키고 기도주(또는 시천주)주문을 그대로 존중하였으며 다시 태을주를 외우게 하였는데 태을주의 「흠치흠치 태을 천상원군」(吽哆吽哆 太乙天上元君)은 「지 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을 좀 더 구체화 시킨 것이다. 흠(吽)은 호흡하는데 숨을 들어쉬는 모양이요 치(哆)는 호흡하는데 숨을 내뿜는 모양인데 흠치라고 외우면 자연히 호흡작용이 조절된다. 기는 호흡을 통하여 작용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기가 지금내려온다(至氣今至 願爲大降)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호흡작용을 통하여 우주에서 인간으로 흐르기 때문에 흠치흠치라는 호흡작용을 통하여 하느님(태을천상원군)을 맞아드릴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시천주)과 같다.

우주에 충만한 기는 늘 우주를 순환하고 있다. 최수운이 지기(至氣)라고 하여 기의 본체를 밝혔다면 강증산은 대순(大巡)이라고 하여 기의 운동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지기는 기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를 말하는데 그것이 하느님이요 천주(天主)요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이다. 강증산은 기의 궁극적 존재의 하느님으로서 늘 우주를 대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하느님의 실체를 수운이 정적(靜的)인 면에서 본것에 대해서 증산은 동적(動的)인 면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증산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기일원론(氣一元論) 또는 유기론(唯氣論)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도통과 의통

정신과 물질은 본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심안신(安心安身)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면 안신이 되는 것이요 안신이 되면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안심과 안신은 하나이지마는 마음과 몸이 따로 있는 이상 마음을 주로하는 행동과 몸을 주로하는 행동을 일단 구분할 수 있다. 마음을 주로하는 행동은 마음의 본체인 양심(良心)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몸을 주로하는 행동은 행동을 규제하는 예법(禮法)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웁고 몸이 편안하지 못하면 몸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운 것은 곧 병(病)이다. 마음이 병들면 사심(邪心)이 일어나고 허욕(虛慾)이 일어나고 몸이 병들면 도리(道理)를 어기고 예법(禮法)을 무시하게 된다. 현무경에는 큰병에는 약이 없고 작은 병에는 약이 있는데 큰병의 약은 안심안신이라 하였다. 그리고 큰병도 무도(無道)에서 나오고 작은 병도 무도에서 나오는데 유도(有道)를 얻으면 큰병이나 작은병이 약없이 스스로 낫는다(勿藥自效)는데서 안심의 요점이 나와있다.

안심이란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양심이란 도(道)를 자각하는 기능이다. 도를 깨달으면 마음이 되니 마음이란 결국 도통(道通)에서 이루어지고 도통하면 마음은 물론 안신까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를 통하는 것이 곧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이되므로 도통하여 안심하는 것은 곧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의통(醫統)이 된다. 의통이라고 하여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을 쓰지않고 병이 저절로 낫는 물약자효(勿藥自效)의 도통이 곧 의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편안하려면 의통을 지켜야 하는데 그 의통은 곧 도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道)란 무엇인가?

현무경에 큰 병이나 작은 병이 모두 무도에서 나오며 대인대의는 무병이라고 하였으니 그 도란 바로 인의(仁義)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의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하고 임금(군주가 없는 요즘세상에는 군주라고 하는 것은 곧 어느 집단의 지도자를 의미할 것이다)을 잘 섬기고 스승을 잘 받드는데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충(忠)도 없고 효(孝)도 없고 절개(烈)도 없어서 천하가 다 병들었다고 하였고 그와같은 천하의 병을 고치려면 천하의 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통이요 인의이다.

마음과 몸이 하나요 안심하는 것과 안신하는 것이 하나요 도통과 의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현무경에는 병세(病勢)를 말하면서 시천주를 외우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지기금지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라고 하여 지기 즉 천주를 받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으로서의 증산 자신이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천지도술(天地道術)을 받들어 약국(藥局)을 전주 동곡(全州銅谷)에 차리고 생사판단(生死辨斷)한다고 하여 도통과 의통을 밝혔다. 전경

예시 88절에 도통천지보은(道通天地報恩) 성사(聖師) 의통(醫統) 경주용담(慶州龍潭)이라 하였는데 이는 수운의 도통과 의통을 이은 것이라는 뜻이다.

동경대전(東經大全) 포덕문(布德文)에 수운이 상제와 문답하는 가운데 상제께서 「나의 영부(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其名仙藥)이고 그 모양은 태극이요(其形太極)이요 또 모양은 궁궁이니(又形弓弓)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의 병을 고치고(受我靈符 濟人疾病) 나의 주문을 받아(受我呪文)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敎人爲我則) 너도 길이 살아(汝亦長生) 덕을 천하에 퍼리라(布德天下矣)」 하시므로 나도 그 말씀에 느끼어(吾亦感其言) 그 영부를 받아 그리어 먹은 즉(受其符書以吞服則)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潤身差病)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노라(方乃知仙藥矣) 이에 이르러 병난 사람에게 써보니(到此用病則)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有差不差故) 그 까닭을 알 수 없어(莫知其端) 그러한 사유를 살펴보니(察其所然則)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誠之又誠) 지극히 하느님을 위한 사람은(至爲天主者) 모두 병이 낫고(每每有中) 도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不順爲德者)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一一無驗)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此非受人之誠敬耶)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가득하여(是故我國惡疾滿世) 사람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民無四時之安) 이 또한 상해의수(是亦傷害之數也)이니라」 하였다.

이를 보면 수운이 선약(仙藥)으로서의 영부(靈符)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에 있어서 하느님을 위하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병이 다 낫는데 하느님을 위하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병은 낫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지기(至氣)를 정성과 공경으로 모시는 것인데 지기는 곧 양심(良心)이요 그 양심은 정성과 공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정성과 공경은 사사(私邪)됨이 없이 순결(純潔)한 것이요 곧 양심의 바탕이요 인의도덕(仁義道德)의 기본이다.

여기서 논학문에 나타난 수운의 선약(仙藥)과 현무경에 나타난 증산의 병세(病勢)가 일치하는 것을 본다.

수운은 선약을 써도 부도덕한 사람의 병은 낫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증산은 크고 적은 병이 모두 무도 즉 부도덕한 데서 나오고 그러한 병에는 원칙

적으로 약이 없으며 도를 얻어 도덕을 지키면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한 것이 같다. 그런 까닭에 증산은 수운을 성사(聖師)로 받들고 경주용담에서 의통(醫統)을 이끌어냈다. 증산은 병자의 정성과 양심을 환기시켜 물약자효(勿藥自效)의 치료를 해서 병을 고쳤다. 증산은 기도주(시천주)를 외우게 하여 사람이 하느님(天主)을 모시게 하므로써 도덕의 근원인 양심을 환기시키고 또 태을주를 외우게 해서 「흠치 흠치」의 호흡조정을 통하여 사람과 하느님(太乙天上元君)이 일체를 이루어 양심이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렇게 정성과 공경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 일체가 되면 안심 안신이 되어 병이 낫지 않을 수 없다.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고 양심이 밝으면 몸은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뜻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와같이 하느님의 뜻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몸의 행동은 저절로 도리(道理)에 맞게 되고 예법(禮法)에도 맞게 된다. 우리의 행동원리인 도리와 예법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양심이 밝으면 몸의 행동도 순리(順理)로 움직이며 병이 생길 까닭이 없으니 양심이 흐리어 역리(逆理)로 움직이면 몸이 조화(調和)를 잃어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육체 그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흔들리어 안심이 안되기 때문에 육체가 흔들리어 병이 되는 것이다. 그 양심의 발동하는 모양이 대순진리회의 훈회(訓誨)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언덕을 잘 가지는 것이요 셋째는 책을 짓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양심은 곧 하느님의 명령이다. 중용(中庸)에 하느님의 명령을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고 하였는데 이 성을 인간의 본래의 성품 즉 양심이다.

사람의 천성(天性)인 양심이 밝은 사람은 도를 얻은 사람으로 늘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심을 찾기 위한 도통(道通)이 곧 몸의 편안함을 갖다주는 무병의 의통(醫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안심안신의 현대적 의의

현대는 물질문명의 고도의 발달에 의한 자연파괴와 양심마비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더러워져서 크게 생태계를 해쳐서 하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건강의 위기에 있다. 또 이러한 물질만능사상에서는 양심보다 사심(私心, 邪心)이 앞서서 인간이 이기주의(利己主義)에 흘러 자기마음을 속이고 언덕을 함부로 하며 남과 척을 짓고 은혜도 저버리며 남을 못되게 하게 된다. 이리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 요즘 세상은 모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불편하여 말하자면 마음과 몸이 다같이 병들어 있다.

이와같이 마음과 몸이 병든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시대의 전환기(轉換期)에 병자가 많다. 수운 제세시는 우리나라의 국정이 부패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다가 힘있는 나라들이 약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어 민심은 더욱 불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고민을 수운은 후천개벽사상으로 구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모시고 양심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운의 그와같은 개벽사상은 수구적(守舊的)인 봉건세력(封建勢力)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탄압되어 수운은 좌도난정(左道亂正) 즉 그릇된 이단(異端)사상이 정당한 사상을 어지럽혔다고 하여 사형에 처해지고 그의 신도는 커다란 박해를 받았다. 이에 참지 못한 전봉준(全琫準)은 드디어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그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동학혁명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처사였다.

그러나 이 동학혁명은 성공하지 못한채 민중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증산은 바로 그 와중에 살아있었다. 안심안신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리는 민중을 구하는 길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뜻 즉 양심을 되찾는 것이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면 폭력의보복은 영원히 되풀이되어 세상은 더욱 살기어렵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바로 이 폭력을 배척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증산은 해원상생의 천지개조(天地改造)를 외치고 그 개조신념으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했다. 당시 민중들은 하나님이나 양심 같은 것을 아는체 하지 않고 오직

사리사욕과 폭력만이 날뛰었기 때문에 증산은 민심을 근본적으로 돌려서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절감했다. 여기서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가 도출되었다.

증산의 사상은 로마제국시대의 유대인 예수의 사상과 비슷하다. 유대민족이 로마제국의 압정에 시달리어 민중이 도탄에 빠졌을 때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력투쟁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무력투쟁이 유대민족을 구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길은 먼저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복음을 폈다. 예수는 지금까지 유대인이 믿던 복수의 성격이 가미된 하느님을 그 복수에서 해방시켜 오로지 사랑만의 하느님으로 성격을 전환시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유대인의 도덕적 자각을 촉구했다. 증산도 민중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이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원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원사상을 외쳤다. 이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것으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느님을 초월적으로 찾았으나 증산은 하느님을 내재적으로 찾았다. 수운은 자기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시천주(侍天主)사상을 가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이다. 인내천사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타당되는 추상적 보편적 원리가 강증산이라는 구체적 개별적 인간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곧 내가 하느님(吾乃天)이 된다. 증산은 지금까지의 천존(天尊)사상에 대해 인존(人尊)사상을 제고함으로써 하느님의 명령인 양심의 환기를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안심안신의 경지를 얻기 쉬우게 만들었다.

지금은 바로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다가오는 때요 1001년부터 2000까지의 천년(Y1K)이 지나가고 2001년부터의 새로운 천년(Y2K)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1001년부터의 천년대(Y1K)는 십자군의 종교전쟁을 비롯하여 지구상에서 국가간 민족간의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천년이요 특히 20세기는 두 번이나 세계대전이 있었던 전쟁의 세기였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2000년(Y2K)대로 들어가는 지금에 있어서 새로운 원리가 서지 않고서는 새

시대라고 하여 기대할 수가 없다. 구시대의 서로 미워하고 척을 짓는 상극적 투쟁사상에 대해 새시대에는 서로 사랑하고 척을 짓지 않는 상생적 평화 사상이 안 일어나면 인류의 전도는 여전히 암담하다. 이런 의미에서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이 바로 전환기를 맞는 위대한 사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심 안신사상은 도탄에 빠진 전인류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복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심 안신은 별개가 아니라 심신일원론에 입각하여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저절로 편안하게 되므로 이는 너무 신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안심을 가장 중요시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게 할 것이다. 안심 안신론의 현대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